

자력갱생으로 승리떨쳐온 불멸의 년대기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키워주시여

집세위인들의 슬하에서 혁명하고 창조하는 법을 배운 인민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지역으로 자기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며 위대한 승리를 창조하는 법이다.
우리 인민은 1990년대를 말할 때면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따라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고난의 행군을 띤 위대한 장군님 사자하신 혁명적 투쟁의 나날들이 사무치게 어려와 가슴을 적시곤 한다.
어찌하여 우리 인민은 력사의 그 나날들을 못 잊어 추억하는것인가.
지금도 천만군인이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이 가슴에 뜨겁게 피고있다.

얼마나 준엄한 날이 이 땅에 흘렀던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었던가 라는 언덕에서 장군님 시작하신 고난의 행군을 우리는 잊지 않으리...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었다면 미제 폭격을 피수호 하는 제국주의원한세력의 악랄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침입살육정찰을 단호히 짓부셔 사회주의를 수호한 불굴의 정신력에 대하여, 지역자장의 힘으로 안아온 우리 조국의 눈부신 전진과 세인을 강건시키며 힘있게 열어젖힌 사회주의건설의 활로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수 있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오직 자제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장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굴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참으로 아무 다형할수 없는 시련이 이 땅을 휩쓸었던 고난의 시기였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던 때였다. 그러나 나라가 없었다면...
천후들이 악의에 차 조선의 불씨는 시간문제이요 라는 말을 모아 떠돌고 새

람들은 불사신처럼 일떠섰다.
그들은 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자제의 힘으로 연세를 쌓았고 수백발 전심비밀을 만들어냈으며 곳곳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웠다. 생활이 어려운 속에서도 쌀배양이 아니라 거름집을 지고 논밭을 갈고 밭을 갈고 나가야 한다. 다른데 쳐다볼것도 없고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준엄한 그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던 고시에는 자력갱생이 우리의 생명이며 자력갱생의 길에 승리의 진로가 있다는 조선혁명의 철리가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었는가.
우리 혁명의 모든 년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그 시기에 창조된 강계정신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자기 명도따라 끝을 끝까지 따르는 불굴의 신념과 자제의 힘으로 만년을 이겨내고 남달라야 할 발전하고 전진해나가려는 강렬한 지향과 열의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우리 인민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나가던 20여년전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장도의 백일군을 찾오시어 지금 걸리고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동무생각엔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 같고 같은가 물으시였다. 일군은 신평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때와 같이 엄중한 시련과 난관을 부닥쳐보려는 처음이었던것이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사업에서 전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식량이 더 값싸고 하면서 지금형에서 전기문제 푸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나라에 흔한 수력자원을 리용하여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다. 그때와 같이 엄중한 시련과 난관을 부닥쳐보려는 처음이었던것이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사업에서 전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식량이 더 값싸고 하면서 지금형에서 전기문제 푸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나라에 흔한 수력자원을 리용하여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다. 그때와 같이 엄중한 시련과 난관을 부닥쳐보려는 처음이었던것이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사업에서 전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식량이 더 값싸고 하면서 지금형에서 전기문제 푸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나라에 흔한 수력자원을 리용하여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다. 그때와 같이 엄중한 시련과 난관을 부닥쳐보려는 처음이었던것이다.

두들기 꿰돌려 내달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에 비하면 때 때 무도 작은 소리이다.
발전소에서 돌아가는 발전기의 돌음에 비하면 때때도 그 소리는 가늘고도 가늘다.
하지만 세상에 그보다 큰소리가 있더라.
비록 선봉도 카사도 없지만 그것은 사대의 천가마냥 심금을 울린다.
실사 음향은 각이하다 해도 그것은 귀에 익은 정다운 목소리마냥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피고있다.
초인종소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그 소리는 잊지 못할 몇해전의 장전거리에서 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며 인민의 리의를 끝없이 하며 인민봉사를 철칙으로 하여니

울 막힌 행군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한 위대한 힘인 자력자장의 정신. 거기에는 오해를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승승한 인생관이 비쳐있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혁명적관용과 함성이 차넘치고있으며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드넓은 배양과 확고한 신심이 깃들어 있다.
순죽었던 공장에서 세계를 울려 퍼진 생산정열의 종용과 로동정열의 열풍이 사회주의건설의 땅따개비로 전진한 열풍들, 안면청진발전소 등 도처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천대적인 초신기지, 가금기지와 물고기떼 육식기지의 양 어장, 메기공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전진의 그 나날에 태어난 모든 창조물들은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억세게 키워주신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명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혁사는 가장 엄중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출발시키시어 조국과 혁명앞에 열아름다운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정승하셨다.
우리 혁명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말라지고 해도 자기 힘을 믿고 지역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공과 힘겨운 시련이 내리쳐 있을수 없다.
지역자장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생명력이고 강성대국의 무한한 원동력이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적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 철리를 심장같이 새겨놓고 실천하는 정신,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최대로 불꽃시켜 올레 당에서 세신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성취시 쉰다!
이것이 만리마속으로창조대업을 산악이 떨쳐내신 우리 인민의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따라 자력갱생으로 승리의 년대기를 통해 펼쳐내실것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자장도인민들의 온 나라에 내세우시였다.
우리가 인민이 사회주의수호전, 붉은기수호전을 승리로 빛내고 고난의 행군

을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밖으로 오려 도록 서시였다.
남북측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내리는 찬눈을 막아드릴수만 있다면 이 땅에 내리는 눈을 자신들 다 맞으시려는 열망이 맥맥히 넘쳐흐르고있었다.

《나도 장군님처럼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불꽃마음을 쫓고 불태워나가려고 합니다.》
어느새 겨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군들이 그이께로 달려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수리에 붙어있는 그들에게 지금 눈이 내리는가고 물으시였다.
함박눈이 내리고있다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함박눈이 스치듯이 내리고있었다.
원수님이 불리오는 류다를 정서에 잠기신듯 눈내리는 밖에 눈길을 주시고 이윽고 도록 서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눈속을 헤치시며 천지지도의 길을 달리실것이라고 나직이나 말할수 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원수님의 가슴은 승연함으로 젖어있었다. 원수는 파 불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애가 들어져 있었다.
원수님을 맞으시며 절도록 서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앞에 위대한 장군님의 무장조국건설념의 실현을 위해 경애하는 이 땅에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쫓고 나가는 원수님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경건한 추억속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신 차가 몹시 지칠것이라고 하시면서 외우도 잊지 않으신채 밖으로 걸음을

무의 회복이 더 아름답다 펼쳐졌으니 정전에서 울린 그 유성 한 초인종의 메아리에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가득 실려있지 않았었다.
그렇다. 그 정다운 초인종소리가 울리며 마음 열면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정히 말하였

것이었고 어느명절날이 거러, 서 거러서서 잇달아 울린 초인종소리는 추하의 꽃다발과 성의 꽃 마린 불자들을 가지고 전경로병들과 영애군인가장들을 찾은 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이 울렸었다.
장전거리에서 울린 그날의 웃음은 초인종소리를 따라 오늘날 거리와 마을들에 끊임없이 울리는 초인종소리, 그 정다운 소리에 실려 정전에 울려대는 다정한 인민사랑...
참으로 그 소리는 인민에게 줄 기쁨과 행복을 안고 인민들을 정당에 찾은 어머니 우리 땅의 다양한 사랑의 목소리이고 이 나라의 거정에 속속 불어 깃드는 행복의 메아리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귀전에 어디선가 울리는 초인종소리가 또다시 울려온다.
말할, 말할...
본사기자 정 순 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일도성당학교에서- 본사기자 비 명 찍음

수필
울림으로 보살피주어야 할 마음이다.
정전 새 거리의 집집마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것인가.
의사들도 울것이고 상점판매원들도 울것이고.
일군들은 또 그들대로 넘쳐서

찾아오리라. 생활상 불편한 점은 없는가 알아보고.
참으로 우리 원수님께서 울리신 그날의 초인종소리는 인민의 리와 권을 갈라지시어 이 한나라는 다정히 가르치심에 아니었었다.
그날의 초인종소리와 더불어 인민들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걸음을 걸고 인민들을 위해 신발장이 닳도록 뛰는 원수님부

인민들 속에서

이 땅에 원수가 있는 한 무기를 놓을수 없다
김 대 흥
제국주의가 있는 한 무기를 손에서 놓을수 없으며 더욱 억세게 틀어잡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민족적자부심을 가지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결속의 신념을 가지게 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중요원은 그들이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끝까지 무장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속의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두들기 꿰돌려 내달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에 비하면 때 때 무도 작은 소리이다.
발전소에서 돌아가는 발전기의 돌음에 비하면 때때도 그 소리는 가늘고도 가늘다.
하지만 세상에 그보다 큰소리가 있더라.
비록 선봉도 카사도 없지만 그것은 사대의 천가마냥 심금을 울린다.
실사 음향은 각이하다 해도 그것은 귀에 익은 정다운 목소리마냥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피고있다.
초인종소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그 소리는 잊지 못할 몇해전의 장전거리에서 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며 인민의 리의를 끝없이 하며 인민봉사를 철칙으로 하여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형편과 일부 구공단의 대원상태와 몇몇 관급들의 사정작황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체위주하고 때때 지휘관들이 명도예시를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편대군장에게 환자치료정형과 특히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당시 구공단이 새로 배치된 이곳에는 지형상으로 우물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있었고 또 위생적으로도 좋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며 물리치고 철관을 놓아 다른 곳에 있는 좋은 음료를 끌어오르게 할것을 지시하시며 철관이 있는나고 물으시였다.
편대지휘관들은 이미전부의 음료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관을 구해보았으나 못때로 되치 않았다고 그이께 사실히 말씀드렸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며 인민의 리의를 끝없이 하며 인민봉사를 철칙으로 하여니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며 인민의 리의를 끝없이 하며 인민봉사를 철칙으로 하여니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며 인민의 리의를 끝없이 하며 인민봉사를 철칙으로 하여니

이 땅에 원수가 있는 한 무기를 놓을수 없다

김 대 흥
제국주의가 있는 한 무기를 손에서 놓을수 없으며 더욱 억세게 틀어잡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민족적자부심을 가지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결속의 신념을 가지게 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중요원은 그들이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끝까지 무장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속의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며 인민의 리의를 끝없이 하며 인민봉사를 철칙으로 하여니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며 인민의 리의를 끝없이 하며 인민봉사를 철칙으로 하여니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며 인민의 리의를 끝없이 하며 인민봉사를 철칙으로 하여니

